

인문계열 논술문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천은 2000년 ‘Global Change Newsletter’에 기고한 ‘인류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지구’는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고, ‘인류세’라는 새 지질연대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질연대 구분은 화산폭발, 판구조 운동, 소행성 충돌 등 지구 안팎의 대규모 물리적 운동에 의해 각 지층의 화석을 이루는 생물종이 급격히 달라질 때 이루어진다. 크뤼천의 주장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 인간 활동의 영역은 대단히 왕성하게 확대되어 지구 환경과 시스템을 교란하기에 이르렀고, 초자연의 거대한 힘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세의 징조는 다양하다. 2019년 말,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쪽 밀라쿠타를 방문했던 리타 가족은 서쪽에서부터 산불이 번져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아침이 되어도 재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았다. 사이렌과 자동차 경적음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리타 가족은 바닷가로 대피했고, 사흘이 지나서야 해군에 의해 구조되었다. 2019년 9월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이 산불은 2020년 5월까지 이어져 한국의 63%나 되는 면적을 전소시켰고, 야생의 캥거루와 코알라 등은 멸종을 걱정할 만큼 불에 타죽었다.

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에서도 올해 유사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전국합동화재센터가 집계한 2020년 대형 산불은 85건이었고, 기상학자들은 페루 앞바다의 해수온이 낮아지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고기압이 발달했고 이에 따른 건조현상이 화재를 부추킨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올해 여름 양쯔강 물이 불어나 700년 역사의 사원 ‘관인거’가 물에 잠겼다. 6월부터 폭우가 내려 최소 1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3,87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자 안후이성 당국은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추허강 댐을 폭파했다.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토지매립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지구상 경제활동이 주춤한 가운데도 이례적인 이상 기후 현상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 45억년 지구 역사는 지층의 현저한 변화를 기준으로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되며, 각 대(era)는 다시 여러 기(period)로 나뉜다. 예를 들어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뉜다. 지금은 신생대 제4기에 속하는데, 이는 다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의 두 세(epoch)로 나뉜다. 신생대 제4기에 네 번의 빙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온난해진 약 만 년간의 시기가 현재의 홀로세이다.

<나>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는 산업화에서 초래되었고 때로는 재앙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파괴적 능력이 커진 만큼 재앙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도 신장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인류의 적응성을 입증하며, 인류세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도전 과제일 뿐이다.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인류세에 출현하는 새로운 양상의 위기는 인류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류세는 인류를 도약하게 하는 위대한 지질연대가 될 것이다. 정보의 신속한 소통과 공유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세계 도처의 기상 이변을 더욱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역사를 보라. 인간은 극적으로 자연체계를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지구는 더욱 생산적으로 변모했고 인류를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위기를 이룬 창출의 기회로 삼는 자본의 속성과 민첩성은 신산업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수소연료차량 개발 등 녹색산업혁명은 경제성을 획득하며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전지구적 위기가 가시화될수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구공학적인 대책도 다채롭게 제안될 것이다. 더구나 인류세의 인간은 향상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향상된 신체적 능력을 갖춘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세의 자연은 홀로세의 자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만큼 인류세의 인간은 홀로세의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의 활용은 무한하며, 많은 부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인문계열 논술문제

<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는 단순히 생태계의 변형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함축한다. 인류세는 지구시스템 전반의 기능에 생긴 ‘균열’을 설명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인류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 경제 성장, 자원 이용, 쓰레기양과 관련한 모든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불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급증했다. 이제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지구, 인간과 인간의 기술이 과거와 비교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근대 초기 자연은 ‘극도로 괴롭힘으로써 비밀을 밝혀내 인간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다가, 최근에는 ‘종말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조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복무하거나 희생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인류세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자연을 표현하는 낱말은 ‘깨어난 거인’, ‘반격하고 복수하는’ 가이아, ‘죽음의 소용돌이’로 변모하고 있다. 자연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시름하는, 수동적이고 파괴되기 쉬운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 지구가 두 팔을 벌린다면, 우리를 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으스스리뜨리기 위해서다. 우리의 목표는 ‘자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구시스템을 기술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이다. 우리가 지구시스템에 초래한 혼란 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영향은 수천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인류세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인간에서 비롯된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피할 수 없는 것들에 적응하는 방법, 장기간에 걸쳐 지구시스템에 가해지는 피해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경제문제 외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라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스 요나스는 “네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에 미치게 될 결과까지도 예견하여 사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세대의 잘못으로 미래세대가 고통스럽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의 원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자신의 유전적 질환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아이가 태어날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해보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의 삶에 사전적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여긴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적어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감과도 부합한다.

현세대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 모두 설명될 수 없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부모는 자식과 손자세대와 정서적 유대를 맺고, 때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며 이를 인간다운 삶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서 세대간의 정서적 유대를 미래세대로까지 확장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돌봄의 윤리가 필수적이다.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비호혜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국가 사회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 세대 사이의 도덕적 연대이다. 국가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자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자기 세대만의 관점으로 자원분배의 형평성을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인류 안에는 미래세대도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그 후손세대를 위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세대가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인문계열 논술문제

<마>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인류애의 확장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간 도덕 능력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생각에 기인하며, 현재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길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조장한다.

흔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우리 세대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안 되는 이유로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든다. 그렇지만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원 정책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아끼며 불편을 감수할 경우 달라진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자식을 낳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간단하게 계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는 또한 현재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여건을 갖춘 어떤 부유한 가정의 화목한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그 부부는 원치 않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미래세대인 아이의 행복을 지켜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는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까지, 큰 결과에서 작은 결과까지 다방면에서 빚발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눈감게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선진국의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적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제3세계 빈곤층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세대의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이될 뿐이다.

우리가 살펴야 할 미래세대는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까지로 충분하다. 진화는 인간에게 매우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만을 허락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지나친 도덕적 요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만을 낳을 뿐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착한 일을 한 번 하고 나면 '도덕적 허가 효과'로 선한 행동을 덜 실천하려는 심리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어린 세대에게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 1】

<가> 현상을 <나>,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각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처방을 논술하시오.(900±100자)

【문제 2】

<라>와 <마>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각각 세 가지 근거를 밝히고 있다. 두 제시문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주장과 세 근거를 요약하고, 그 근거 중 두 가지를 비판한 다음,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의 다음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100자)

2020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청은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4년부터는 차량 타입에 따라 5~9%, 2030년에는 30~50%, 2045년에는 100% 친환경차 판매가 의무화된다. 의무 판매 대상이 되는 트럭은 3.8톤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로 픽업트럭 등 경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